

작년 어업생산량 1.9% 증가... 양식업은 부진

통계청,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연근해·원양어업 어획량 ↑, 해면양식·내수면 ↓

지난해 국내 어업 생산량이 전년보다 1.9% 증가한 368만t을 전년보다 늘었지만 수온 상승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단가가 높은 해면양식업이 부진하며 생산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 생산량은 367만8000t으로 전년(361만t) 대비 1.9%(6만8000t) 증가했다. 2017년 이후 370만t을 꾸준히 상회했던 어업 생산량은 2022년 비교적 큰 폭(5.7%)으로 줄어든 뒤 2년 연속 360만t대를 기록했다.

멸치, 정어리, 꽃게 등 연근해어업

어획량과 횡다랑어, 명태 등 원양어업 자원량 증가 등의 영향이 전반적인 어획량 증가를 견인했다. 연근해어업은 95만6000t으로 7.6%(6만7000t), 원양어업은 41만t으로 2.7%(1만1000t) 각각 늘었다

반면, 해면양식업과 내수면어업은 해수면 온도 상승과 수요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줄었다. 해면양식업은 넙치류, 흰다리새우, 김류 등의 생산량이 줄어 226만8000t으로 0.2%(5000t) 감소했다. 내수면어업은 매효어, 메기, 붕어류 생산량 감소로 12.1%(6000t) 줄어든 4만8000t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늘었지만 어업생산액은 9

조2884억원으로 전년(9조2494억원)보다 소폭(0.4%) 늘어나는데 그쳤다. 어획량이 늘어난데 그쳤다. 어획량이 늘어난데 그쳤다. 어획량이 늘어난데 그쳤다.

해면양식업은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7.3%(2487억원) 줄어든 3조3379억원, 원양어업은 오징어와 한치류 어획량 감소로 2.4%(271억원) 감소한 1조986억원, 내수면어업은 소비 부진 등으로 1.4%(95억원) 쪼그라든 6846억원 나타났다.

어종별로는 정어리가 어획량이 3배 늘어난 4만8000t, 멸치는 11.8% 증가한 14만8000t이다. 붉은대게(27.9%), 삼치류(28.2%) 등도 늘었다. 넙치류(-10.0%), 살오징어(-36.2%), 청어(-23.2%), 정새우류(-46.1%) 등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양식 부진과 수요 감소에도 전체 어획생산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업이 생산량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 영향으로 단가도 올라 전반적인 어획량과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지난 23일 '2024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32명에게 모두 2,9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전건협 전북, 장학금·장학증서 수여

선발된 장학생 32명에 총 2980만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23일 오후 2시에 전주 전문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28회 전문건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2024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32명(고교생 11명, 대학생 21명)에게 모두 2,9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회원사임·직원과 장학생 및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임근홍 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참예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과 위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승리는 가장 끈기있는 자의 몫이

다"라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면서, "힘들고 지치게 느껴질 수 있는 학업과 노력이 훗날 큰 성과로 돌아와 꿈을 실현시켜 지역과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응원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희망 나눔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8회 회원사임·직원과 장학생 및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각종 재해재난사고 발생 시에도 발벗고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옥기 기자

한농공 무진장지사 과수원 매입·임대차 사업비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무주, 진안, 장수군관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및 과원규모 확대를 위하여 과원규모화사업(과원매매, 과원임대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과원 규모화사업은 과수 영농경력 3년 이상, 0.3ha 이상의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64세이하 과수전업농 또는 61세이하의 과수농가로서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을 거쳐 과원매매와 임대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원규모화사업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소유 과원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2030세대,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원 매매는 연2%, m당 20,000원

상한, 11~3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고, 과원 임대차는 지역 관행 임대차료를 감안하여 공사와 합의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올해 7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무주, 진안, 장수 관내 과수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정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바이오진흥원, 네팔 농업 대학과 '바이오 소재 허브 구축' 협약

제2회 아시아 빅 네트웍스 포럼 참석 성과... 글로벌 Bio 원물 소재 Core-Hub 구축식품 수출시장 확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22일 네팔 농업 대학과 글로벌 Bio 원물 소재 Core-Hub 구축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글로벌 약용작물 공급망 구축, △기능성식품 제조 공동연구, △기술이전, △공동체세미나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은 2월 22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 빅 네트웍스 포럼에서 체결되었다.

본 포럼에는 한국과 네팔의 바이오 분야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글로벌 Bio 원물 소재 Core-Hub 구축 및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네팔 농업 대학과 글로벌 Bio 원물 소재 코어-허브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Bio 원물 소재 가공 및 글로벌 공급 구축'과 'Bio 제품의 현지화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협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바이오진흥원은 천연물 가공 규격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 시 결림돌이 되는 부분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현지 맞춤형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식품 수출시장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네팔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더욱이 올해는 한-네팔 수교 50주년이어서 Bio 분야 및 기능성식품 공급망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과 함께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변화에 대한 시장대응 일환으로 지난 2023년 11월에 출범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2ba.or.kr)'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 14개의 시군 광역마케팅조직 담당자, 도매시장 및 공판장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해 온라인 도매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일정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단위 시장이다.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단축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수수료(거래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보증보험 증권 보험제공 및 일부보험료 환급을



전북농협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옥기 기자

농식품유통공사, 한상 기업과 K푸드 수출 확대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오만 진출 한상 기업인 Malm Ideal Choice Co LLC(대표 엄평호)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K-푸드 중동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alm Ideal Choice는 2008년 설립되어 오만 무스카트에서 한국마트(Hankuk Store)를 운영 중이며, 한국산 농수산물과 화장품을 현지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벤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과 전 세계 확산 협력 △오만 등 중동 시장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오만에 한국 농수산물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한상 기업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오늘 협약으로 K-푸드의 중동 신시장 수출 확대는 물론,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만과 인근 국가들에 '저탄소 식생활'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라고 말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

이에 국민 먹거리 책임기관인 공사는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도입해,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기업 등 국내외 38개국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